

문화재청 공고 제2018-10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9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 3. 23.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9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 (金正喜 筆 書員嶠筆訣後)	1첩	전**·전** (간송미술문화재단)
2	김정희 필 난맹첩 (金正喜 筆 蘭盟帖)	2첩	전**·전** (간송미술문화재단)
3	이징 필 삼청첩 (李霆 筆 三清帖)	1첩	전**·전** (간송미술문화재단)
4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李澄 筆 山水花鳥圖帖)	2첩	전**·전** (간송미술문화재단)
5	심사정 필 촉잔도권 (沈師正 筆 蜀棧圖卷)	1축	전**·전** (간송미술문화재단)
6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 (金得臣 筆 風俗圖 畫帖)	1첩	전**·전** (간송미술문화재단)
7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 (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品)	1첩	이** (삼성문화재단)
8	송조표전총류 권6~11 (宋朝表箋總類 卷6~11)	3책	이** (삼성문화재단)
9	대곡사명 감로왕도 (大谷寺銘 甘露王圖)	1폭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박물관)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보물 지정 예고】

□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金正喜 筆 書員嶠筆訣後)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金正喜 筆 書員嶠筆訣後)
-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첩(帖)
- 규 격 : 26.1×15.0cm
- 재 질 : 종이
- 형 식 : 첩(선풍엽)
- 조성연대 : 19세기 전반
- 사 유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조선 후기 서예가 이광사(李匡師, 1705~1777)가 쓴 『서결·전편』의 자서(自序)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비판한 글을 행서로 쓴 것이다. 김정희의 친필 원고이자 이광사의 서예 이론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글씨를 연마하는데 있어 금석문 고증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은 우리나라 서예이론 체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는 김정희의 서론(書論)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며, 추사체(秋史體)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행서는 조선 말기 서예를 대표할 만한 격조를 보여준다. 서첩에 수록된 3점의 수묵산수(水墨山水) 역시 김정희가 즐겨 그린 문인화(文人畫)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 김정희 필 난맹첩(金正喜 筆 蘭盟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정희 필 난맹첩(金正喜 筆 蘭盟帖)
-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2첩(상·하첩)

- 규 격 : 22.8×27.0cm(상권), 23.4×27.6cm(하권)
- 재 질 : 종이
- 형 식 : 첩(帖)
- 조성연대 : 1830년대~1840년대
- 사 유

‘김정희 필 난맹첩’은 조선 말기 학자이자 정치가, 서화가인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묵란화(墨蘭畵) 16점과 글씨 7점을 수록한 서화첩으로, 김정희의 전담 장황사(粧潢師) 유명훈(劉命勳)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글씨 뿐 아니라 사군자(四君子)에도 능했던 김정희는 관련 작품을 여럿 남겼지만 난맹첩처럼 묵란만 모은 사례는 이 작품이 유일하다.

난의 형상을 다양한 구도와 모습으로 구현했으며 김정희가 추구한 사란법(寫蘭法)에 입각해 개성적인 필묵법(筆墨法)을 구사한 대표작으로 꼽힌다. 화면에 쓰인 제시(題詩) 역시 난(蘭)에 관한 고사(故事)와 난 그림에 능했던 중국의 인물들, 난의 속성 등에 관한 것으로, 문사철(文史哲)에 해박했던 김정희의 학술적 경지를 보여준다. 서예적 필법으로 난을 다양하게 잘 그렸던 김정희의 화풍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으며, 후대 화가들에 큰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회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 이정 필 삼청첩(李霆 筆 三清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이정 필 삼청첩(李霆 筆 三清帖)
-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첩(帖)
- 규 격 : 45.8×39.3cm(전체), 26.5×39.3cm(화면)
- 재 질 : 흑견(黑絹), 금니(金泥)
- 형 식 : 첩
- 조성연대 : 1594년(선조 27)
- 사 유

‘이정 필 삼청첩’은 조선 17세기 종실(宗室) 출신 화가 탄은(灘隱) 이정(李霆, 1554~1626)이 1594년 12월 12일 충남 공주에서 그린 그림으로, 총 1첩의 54면으로 구성된 서화첩(書畵帖)이다.

이정은 조선시대 묵죽화(墨竹畵)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 화첩에는 이정의 묵죽화 뿐만 아니라 매화와 난 그림이 수록되어 이정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쪽빛으로 물들인 비단 위에 금니(金泥)로 사군자의 생태(生態)와 관련된 모습을 정교하게 묘사하여 매우 화려하고 섬세하다.

‘삼척첩’에는 이정의 그림 뿐 아니라 최립(崔]昱, 1539~1612), 차천로(車天輅, 1556~1615) 등 이정과 교유한 당대인들, 윤신지(尹新之, 1582~1657), 송시열(宋時烈, 1607~1689) 등 후대인들의 발문이 포함되어 이 첩의 제작시기와 전래경로를 명확하게 전해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더해 주고 있다. 이 화첩은 조선시대 사군자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작품이자 조선시대 최고의 묵죽화가 이정의 수준 높은 필력(筆力)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라는 점에서도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

□ 이정 필 산수화조도첩(李澄 筆 山水花鳥圖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이정 필 산수화조도첩(李澄 筆 山水花鳥圖帖)
 -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첩(帖)
 - 규 격 : 31.0×21.0cm
 - 재 질 : 비단에 수묵담채
 - 형 식 : 첩
 - 조성연대 : 1642년(인조 20) 추정
 - 사 유
- ‘이정 필 산수화조도첩’은 조선 중기 소경산수(小景山水)와 영모화(翎毛畵)로 명성이 높았던 허주(虛舟) 이정(李澄, 1581~?)의 그림 18점과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 백주(白洲) 이명한(李明漢, 1595~1645) 등 당시 유명 문인들의 제시 37점을 수록한 시서화(詩書畵) 합벽첩(合璧帖)이다. 이들이 그림에 대해 쓴 제발문(題跋文)을 통해 이정의 62세 무렵인 1652년(인조 20)경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는 이정이 조선 최고의 회가로 인조의 충애를 받아 화원(畵員)들을 지도하기 위해 도화서(圖畵署) 교수(敎授)로 임용된 시기로서, 그의 예술적 기량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때이다.
- 이 서화첩은 이정이 화조·영모 분야를 비롯해 산수에 있어서도 17세기 회화를 선도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데 기준작으로서 의의가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서화 합벽첩이자 기년작(紀年作)이 많지 않은 조선 중기 산수영모화 중 드물게 작가와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 작품으로 한국회화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편년작으로 가치가 높다.

□ 심사정 필 축잔도권(沈師正 筆 蜀棧圖卷)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심사정 필 축잔도권(沈師正 筆 蜀棧圖卷)
-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축(軸)
- 규 격 : 58.0×818.0cm
- 재 질 : 종이에 수묵담채
- 형 식 : 횡권(橫卷)
- 조성연대 : 1768년(영조 44)
- 사 유

‘심사정 필 축잔도권’은 18세기 대표적인 문인화가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이 죽기 1년 전인 1768년 8월에 이백(李白)의 시 「축도난(蜀道難)」을 주제로 하여 축(蜀)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을 그린 대규모 산수화이다. 그림의 바깥쪽에는 심사정의 친척 심래영(沈來永, 1759~1826)의 발문이 별지에 쓰여 있는데, 여기에 <축잔도권>이 심래영의 부친 심유진(沈有鎭, 1723~1787)과 숙부 심이진(沈以鎭, 1723~1768)의 요청으로 제작되어 집안에 소장하게 되었던 경위가 소상하게 서술되어 있다.

기이한 절벽과 험준한 바위가 축도(蜀道)의 험난한 여정을 시사하는 듯 변화무쌍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색감과 치밀한 구성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심사정이 평생에 걸쳐 이룩한 자신의 모든 화법을 총망라하여 8m에 이르는 긴 횡권(橫卷)에 완성한 역작으로,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통산수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의의가 있다.

□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金得臣 筆 風俗圖 畫帖)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金得臣 筆 風俗圖 畫帖)
- 소유자(관리자) : 전**·전**(간송미술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 수 량 : 1첩(帖)
- 규 격 : 22.4×27.0cm
- 재 질 : 종이에 담채

- 형 식 : 첩(帖)
- 조성연대 : 18세기 말~19세기 초
- 사 유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은 조선후기 화원 궁재(兢齋) 김득신(金得臣, 1754~1822)이 그린 풍속도 8점으로 이루어진 화첩이다. 김득신은 본관이 개성으로, 백부 김응환(金應煥), 동생 김석신(金碩臣), 아들 김하종(金夏鐘)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직업화가[畫員] 가문 출신이었다. 그림은 김홍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산수화, 풍속화에 모두 능했다.

이 화첩은 김득신의 풍속화를 대표할만한 작품으로, 8점 모두 고르게 높은 회화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 상황과 역할에 맞는 인물들의 움직임과 포착해 시선과 감정을 세심하게 표현하였다. 과감하게 배경을 단순화시키고 주인공에 초점을 맞춰 화면상 돋보이게 했으며, 선택적으로 가해진 명암, 소재에 맞게 조화된 다양한 필치 등은 김홍도의 풍속화와 구별되는 김득신 고유의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이다.

김홍도, 신윤복의 작품과 더불어 조선 후기 풍속화를 대표하는 김득신의 작품으로 보물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를 지녔다고 판단된다.

□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品)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紺紙銀泥梵網經菩薩戒品)
- 소유자(관리자) : 이**(삼성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60-16
- 수 량 : 1첩(帖)
- 규 격 : 17.6×428.0cm
- 재 질 : 종이
- 형 식 : 절첩(折帖)
- 판 종 : 팔사본
- 조성연대 : 조선 전기(14~15세기)
- 사 유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은 불교 계율의 기초를 이룬 경전으로서, 이를 근거로 ‘보살계도량(菩薩戒道場)’과 ‘수계법회(受戒法會)’가 많이 개설되었던 중요한 자료이다. 사성(寫成) 기록은 없으나, 양

면 전체에 필사하였고, 첩의 말미에 이 경을 만드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한 승려 대연(大然)의 글이 남아 있어 작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앞부분에 수록된 변상도는 작은 크기이지만 계율을 설법하는 부처와 화불(化佛) 등을 금니로 섬세하게 표현하였고, 금니의 발색도 양호한 상태이다. 변상도를 갖춘 조선시대의 사경은 많지 않으며, 특히 변상도를 갖춘 범망경 사경은 ‘백지금니범망보살계경’(1364년, 보물 제1714호) 등 극소수가 알려져 있어 희소가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은 보물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

□ 송조표전총류 권6~11(宋朝表箋總類 卷6~11)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송조표전총류 권6~11(宋朝表箋總類 卷6~11)
- 소유자(관리자) : 이**(삼성문화재단)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55길 60-16
- 수 량 : 6권 3책
- 규 격 : 26.8×18.5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
- 조성연대 : 1403년(태종 3)
- 사 유

‘송조표전총류’는 국가에서 행하는 각종 의전(儀典)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표(表)와 전(箋)의 작성에 참고하기 위하여 송나라에서 작성된 표전 중 모범이 될 만한 것을 모아 유형별로 분류하여 조선 전기에 편찬한 책이다. 책 자체가 매우 희귀하여 전해지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현존 하는 것도 완질본(完帙本)이 아닌 잔본(殘本)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1403년(태종 3) 주조된 계미자(癸未字) 소자(小字)와 중자(中字)로 인쇄된 것으로, 당시 금속활자로 인쇄된 서책 중 ‘송조표전총류’는 현존본이 희귀한 사례에 속한다. 현재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송조표전총류는 권7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본 자료는 권6~11까지 모두 6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량이 기존 지정본을 포함하면서 수록 범위 또한 넓다. 또한 계미자 소자가 함께 활용된 것으로 보아 계미자가 주조된 태종 재위 초반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자료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조선 개국 후 처음으로 국가에서 만든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인 만큼 고려(高麗)와 조선의 주자술(鑄字術)과 조판술(組版術)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대곡사명 감로왕도(大谷寺銘 甘露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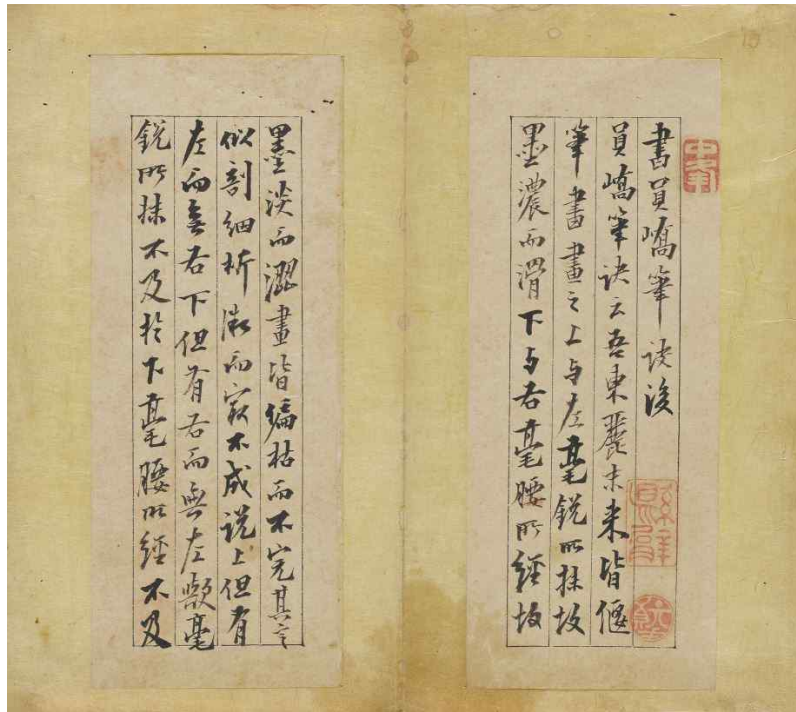
- 지정현황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86호(2000.11.17 지정)
- 명 칭 : 대곡사명 감로왕도(大谷寺銘 甘露王圖)
- 소유자(관리자) : 원광대학교(원광대학교 박물관)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 수 량 : 1폭
- 규 격 : 218.3cm×278.0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액자
- 조성연대 : 1764년(영조 40)
- 제작자 : 치상(雉翔), 쾌인(快仁), 수오(守悟) 등
- 사 유

‘대곡사명 감로왕도’는 1764년 불화승(佛畵僧) 치상(雉翔)을 비롯해 모두 13명의 화승이 참여해 그린 것으로, 화기(畵記)가 일부 손상됐으나 “대곡사(大谷寺)”라는 문구를 통해 경상북도 의성 대곡사에 봉안(奉安)되었던 불화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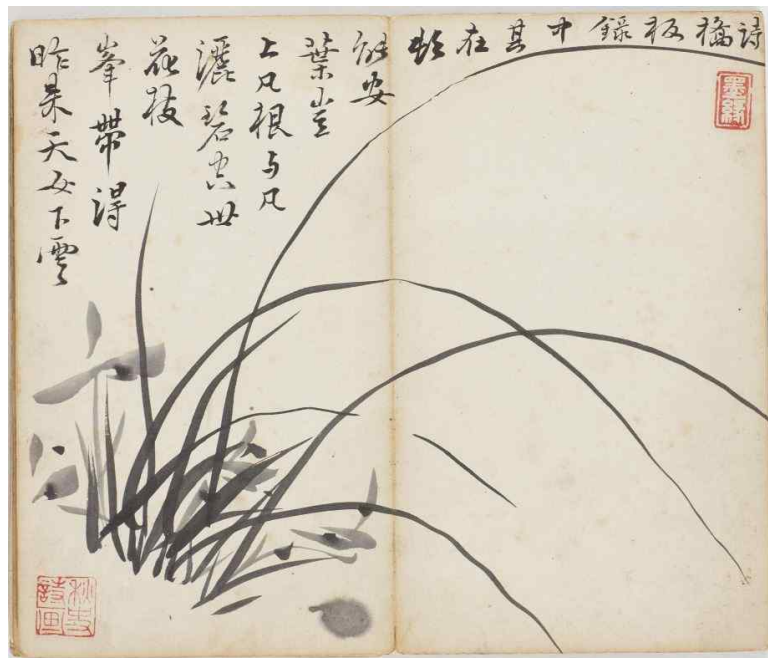
구성을 보면 상단에는 칠여래를 비롯한 불·보살이, 중·하단에는 의식장면과 아귀와 영혼들, 생활 장면 등이 짜임새 있는 구도 속에 그려져 있으며, 온화하고 부드러운 색조가 조화를 이루어 종교화로서 숭고하고 장엄한 화격(畵格)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화면 속 경물과 전각, 인물들의 세세한 모습을 정교한 필치로 그려 동시기 감로왕도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대곡사명 감로왕도’는 제작 시기가 분명하고 봉안사찰, 시주자명, 제작주체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18세기 불화 연구의 기준작이 되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할 필요가 있다.

[첨부] 지정예고 사진



<사진1.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



<사진2. 김정희 필 난맹첩>



<사진3. 이정 필 삼청첩 >



<사진4. 이정 필 산수화조도첩>



<사진5. 심사정 필 축잔도권>



<사진6.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야묘도추도)>



<사진7.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



<사진8. 송조표전총류 권6~11>



<사진9. 대곡사명 감로왕도>